

KOREAN FILM ARCHIVE COLLECTION

한국영상자료원 고전영역 컬렉션



# 양산도

Yangsan Province 陽山道



**양산도**  
**Yangsan Province**



## 줄거리

수동(조용수 분)과 옥란(김삼화 분)은 태중 혼약사이이다. 한양에 갔다 돌아온 김진사의 자제 무룡(박암 분)은 옥란에게 탐심을 품고, 내심 수동을 못마땅해 하던 옥란의 어머니는 이를 이용하여 김진사의 안사람과 혼인약속을 한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옥란의 아버지는 혼인에물로 들어온 비단을 불태워버린다. 어느 날 밤 옥란을 겁탈하려던 무룡을 막던 수동은 김진사의 하인들에게 끌려가 손가락을 잘리게 된다. 보다 못한 수동의 어머니와 옥란의 아버지는 옥란과 수동을 들관에서 몰래 혼인식을 치르게 하고, 옥란과 수동은 마을을 떠나 도망친다. 하지만 그들은 첫날밤을 지낸 후 그들을 쫓아온 무룡의 하인들에게 붙잡히고, 수동은 그 과정에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다. 붙잡혀 오는 옥란을 발견한 옥란의 부친은 붙잡아오는 하인들 중 한 명을 실수로 죽이고, 옥란과 옥란의 아버지는 옥에 갇힌다. 무룡은 살인죄를 덮어준다는 대가로 옥란과의 혼인을 요구하고, 옥란은 결국 혼인을 허락한다. 무룡이 옥란을 옥에서 꺼내 집까지 바래다주는 길을 쫓아온 수동은 무룡을 죽이려 하나, 옥란이 그와 혼인하겠다고 하자 실의에 빠져 집으로 돌아와 목을 매 자살한다. 수동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수동의 시체를 옥란의 혼인행차 길에 묻는다. 혼인에 나선 옥란의 행차가 무덤 옆을 지날 때 일행의 발이 땅에 붙어버리고, 수동의 어머니는 행차를 막고 가마 밖을 나온 옥란을 찌른 후, 자신도 자살을 한다. 옥란은 수동의 무덤까지 기어가 그의 무덤가에서 죽는다.

## 작품 소개

<양산도>(55)는 김기영 감독의 두 번째 장편영화 연출작이다. 그런데 당시 지면에 실린 영화평들을 살펴보면,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식자들로부터 그다지 좋은 평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다. 예컨대 유두연은 이 영화에 대해 비극성을 살리려는 감독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악취미의 영화'라 혹평하고 있으며, 허백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국산영화의 품위를 타락시킨 불성실한 작품이라 비판하고 있다.

사실 <양산도>가 그려내는 하층민간의 사랑과 이를 위협하는 상류층간의 삼각관계라는 플롯은 <춘향전>과 같은 오랜 설화나 <장한몽>과 같은 일본판 신파극 등 한국 대중문화를 통해 너무나 식상하게 다루어져왔던 소재임에 분명하다. 또한 인물 연기의 감정선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거나, 상징적이면서도 맥락과 다소 동떨어진 대사와 장면들, 성에 장면에서의 과장된 인물 표정과 연기는 당시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 원인이 되기도 했을 것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영상자료원에 남아있는 필름에는 빠져있는 결말부(따라서 이번 DVD에도 빠져있는데, 이 장면의 존재는 김기영 자신의 생전 증언에 의해 확인되었다), 즉 하늘에서 한 줄기 빛과 함께 수동이 내려와 옥랑과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연출은 관습적인 리얼리즘에 젖어있던 식자들에게는 어찌면 자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당시의 식자들이 비판하는 영화의 단점이 오히려 김기영 영화세계의 본령으로 보인다. 즉 억지 감동을 조롱하는 듯한 혹은 비극을 소극으로 만들어버리는 듯한 부자연스러움과 과잉이 <양산도>의 경우에 겨우 그 맹이를 퇴유했을 뿐이며, <하녀> 이후 본격화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김기영 자신이 이 영화의 소재를 설화로부터 가져왔으며, 그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가진 장면은 다름 아닌 마지막 장면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김기영은 이 영화를 사실주의가 아닌 환상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감독의 이러한 의도가 그 의욕만큼 영화 속에서 잘 살았던 것 같지는 않으며, 허물며 이 영화를 한국영화사의 소위 '걸작'의 반열에 올려놓기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오늘날 초기 김기영의 영화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이 영화가 1960년에 개봉된 <하녀> 이전에 연출된 김기영의 8개 작품 중 남아있는 유일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양산도>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감독 소개

그는 ‘한국 영화다운’ 감독이었지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많이’ 한국 영화를 벗어난 감독이기도 했다. - 이효인

김기영은 1919년 서울 교동에서 아버지 김석진과 어머니 한진조 사이의 1남 2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1940년 평양고보를 졸업하고, 세브란스 의대에 낙방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 전까지 극장을 전전하며 독학으로 연극과 영화를 공부하였다. 당시 일본에는 학생들을 위한 외국영화 전용공간이 있었는데,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였다고 한다. 김기영은 이들과 어울리며, 당시 일본에서 상영되고 있는 많은 영화들을 보았다고 한다.

해방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온 김기영은 경성 치과 의전(현재의 서울 치대의 전신)에 입학하였고, 해방 공간의 초기 동안에는 평양에서 연극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정치적 상황이 엄혹해지자, 학업을 계속할겸 서울로 돌아온 김기영은 호국단에 참여하였고, 서울대학교 ‘국립대학극장’ 운동을 주도하였다. 당시 김기영은 채흥의 「길」을 각색한 「암로」, 입센의 「유령」, 차베크의 「인조인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등의 연극을 연출했는데,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1950년 전쟁이 나자 부산으로 내려온 김기영은 연극을 함께 하던 대학 동창인 김윤봉과 결혼하였다. 의사였던 김윤봉은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김기영의 활동을 지원한 평생의 후원자였다. 이후 그는 미국공보원(USIS)에 취직하였는데, 당시 의사월급이 3,500원인 상황에서 미국공보원의 월급은 5만원이나 되었다고 한다. 리버티 뉴스를 제작하면서 20여 편에 가까운 다큐멘터리와 문화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김기영은 1955년, USIS의 제작으로 데뷔작 <주검의 상자>를 연출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한 마을로 돌아온 위장 귀환 병사가 알고 보니 북한에서 납파된 공작대원이었고, 동네에 사는 경찰관이 공산주의자들의 아지트를 폭파시킨다는 줄거리로 가진 <주검의 상자>(주검의 상자는 시한폭탄을 말한다)는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피아골>과 함께 시인 김종문과 시나리오 작가 오영진 사이에 반공영화 여부의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이후 김기영은 <양산도>(55)에 이어 한 여자를 둘러싼 삼각관계의 파국을 다룬 <봉선화>

>(56), 가정부와 주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의 기구한 인생 역정을 그린 <여성전선>(56)과 아역배우 안성기와 김지미의 데뷔작 <황혼열차>(57)를 차례로 발표하였다. 김기영이 한국영화계에서 주목받게 되기 시작한 것은 전후 폐허가 된 도시 빈민굴을 무대로 한 <초설>(58)과 남대문 주변의 부랑아 문제를 다룬 일곱 번째 극영화 <십대의 반항>(59)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김기영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영화세계를 펼치면서 신상옥, 유현목과 함께 한국영화사의 빅3의 한 명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은 1960년도에 발표된 <하녀>를 통해서였다. 실화에서 소재를 구한 이 영화는 하녀의 광적인 집착으로 한 가정이 파멸되어 가는 스토리를 그로테스크한 미장센과 유려한 카메라 워크로 잡아냄으로써 당시 한국영화의 영상적 완성도의 최고치를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작가로서의 김기영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이 영화는 6만의 관객을 동원함으로써 흥행적으로도 성공을 하였다. 이후 이 영화는 <화녀>(71), <하녀 '82>등으로 리메이크되었고, <충녀>(72), <육식동물>(84) 등의 영화들은 가정부는 아니지만 호스티스 길과 같은 하층 직업여성을 요부로 등장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들 영화들 역시 “하녀”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다). 특히 <화녀>와 <충녀>는 개봉되던 해 최고의 관객동원을 기록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까지 누렸다.

김기영은 이러한 “요부” 시리즈 외에도, <현해탄은 알고있다>(61), <고려장>(63), <랜의 애가>(69), <과계>(74), <육체의 약속>(75), <이어도>(77),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79) 등 총 31편의 장편 극영화를 연출하였다. 이 중 제작을 겸한 작품도 <봉선화>(56), <하녀>(60), <고려장>(63), <느미>(79), <수녀(水女)>(79), <자유처녀>(82), <바보사냥>(84), <육식동물>(84) 등 8편에 이른다.

김기영의 영화세계(특히 “요부” 시리즈)를 돌이켜볼 때 흥미로운 점은 그의 영화들이 생리학 혹은 생물학적 인류학에 기반한 자연주의적 성향과 프로이트적인 심리주의(혹은 그 영향을 받은 표현주의)가 묘하게 뒤섞여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특징의 원인으로 김기영의 이력, 즉 자연과학인 의학으로부터 출발한 점이라든지, 프로이트로의 경도, 자연주의 연극 연출의 경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플로베르의 예에서 보듯 자연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극단에 다다를수록 현실성이 휘발되며, 심리주의나 초현실주의적 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김기영의 후기 영화들, 특히 <살인나비를 쫓는 여자>나 <육식동물>의 영화적 과잉이 전체 내러티브와 관객의 현실감각을 무너뜨릴 정도에 이르는 것은 그의 자연주의에 대한 경도가 이미 심리주의를 지나 초현실주의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을까?

김기영의 영화세계와 관련하여 많은 영화연구자들에 의해 지적되는 지점은 한국의 근대성과 맺는 관계이다. 그의 대표작들이 가정부 혹은 호스티스 걸과 같은 한국의 근대화로부터 소외된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의 근대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 위험한 여성과 그녀에 의한 부르주아 가정의 파괴, 남성과 여성 모두의 희생으로 귀결되는 스토리 라인은 중산층 남성성이 가지는 하층 여성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형상화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떠받쳤던 하층민들에 대한 복잡한 연민의 정서를 함께 드러내고 있다. 즉 <하녀>들은 경제적 고도성장 희생자들의 대명사에 다름아니며, 마치 원귀와 같이 끊임없이 출몰하여 그녀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안락함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김기영의 영화세계는 적어도 당대 영화감독들 중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었다. 리얼리즘 혹은 할리우드 고전 양식이 지배하던 1960, 70년대에 이런 식의 독창적인 영화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불가사의하기까지 한 일이다. 같은 맥락에서 영화평론가이자 한국영상자료원 원장인 이효인은 영화 <하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리얼리즘이 최고의 미적 가치였던 시절에 이런 영화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이다. 소재의 선택에 얽힌 사실성보다도 이 소재를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과 결말을 가진 영화적 맥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70년대 대표적 감독이자 평론가인 하길종의 다음과 같은 김기영에 대한 평가는 곱씹어볼 만하다. “김기영의 영화에는 인습적인 줄거리 틀이 없고, 인간의 의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만이 있다. 그는 다분히 실험적이고 편집광적인 태도로 인간의 의식구조에 집착한다. 김기영은 항상 한국사회의 한 측면을 과장된 수법으로 그렸지만 이야기가 황당무계하나 아니냐는 건 따질 필요가 없다. 이야기가 황당하다면 당대의 한국사회를 황당무계하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 김기영 작품 연보

1. <주검의 상자>(1955, 미공보원)
2. <양산도>(1955, 서라벌영화공사)
3. <봉선화>(1956, 김기영 프로덕션)
4. <여성전선>(1957, 은성영화사)
5. <황혼열차>(1957, 동광영화사)
6. <초설>(1958, 예술영화사)
7. <10대의 반항>(1959, 밤아영화사)
8. <슬픈 목가>(1960, 한국영화배급)
9. <하녀>(1960, 한국문예영화)
10. <현해탄은 알고 있다>(1961, 한국문예영화)
11. <고려장>(1963, 한국문예영화)
12. <아스팔트>(1964, 한국예술영화)
13. <병사는 죽어서 말한다>(1966, 한국예술영화)
14. <여, 여, 여>(1968, 한국예술영화, 정진우, 유현목과 옴니버스 제작)
15. <미녀 홍낭자>(1969, 새한필름)
16. <렌의 애가>(1969, 세기상사)
17. <화녀>(1971, 우진필름)
18. <충녀>(1972, 한립물산)
19. <파계>(1974, 동아수출공사)
20. <육체의 약속>(1975, 동아수출공사)
21. <혈육애>(1976, 삼영필름)
22. <이어도>(1977, 동아수출공사)
23. <흙>(1978, 동아수출공사)
24. <살인 나비를 쫓는 여자>(1978, 우진필름)
25. <수녀>(1979, 신한문예영화)
26. <느미>(1980, 신한문예영화)
27. <반금련>(1981, 동아수출공사)
28. <화녀' 82>(1982, 신한문예영화)
29. <자유처녀>(1982, 신한영화)
30. <마보사냥>(1984, 화천공사)
31. <육식동물>(1984, 신한영화)
32. <죽어도 좋은 경험>(1988, 신한영화, 1998년에 개봉됨)

## 참고문헌

- 『김기영 : 허녀들 봉기하다』(이효인, 하늘아래, 2002)
- 『한국영화감독사전』(김종원 외, 국학자료원, 2004)
-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집문당, 1996)
- 『김기영과 쾌락의 영역(2) -'이어도' 고려장을 거부하는 전근대』(김소영, 월간 현대문학 521호, 1998.5)
- 『50년대 한국영화의 좌표, 양산도』(이용권, 영상문화정보, 1999.4.20)
- 『무절서한 연출, <양산도>를 보고』(유두연, 경향신문 1955.10.25)
- 『한국영화의 방향 <양산도>가 제기하는 문제(상, 하)』(허백년, 조선일보 1955.11.06 및 1955.11.08)
- 『김기영: 마성적 욕망과 죽음의 영화』(김영진 외 인터뷰, 부산영화제작조직위원회, 1997) 등

## 양산도

6.25 전쟁 직후 수복 서울은 폐허였고, 400만의 인명 피해를 낸 비극 뒤에 온 국민은 삶의 의욕마저 잃고 있었다.

이 당시 영화들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작품들이 인기를 타고 있었다. 자신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영화 속의 인물들을 통해 눈물을 흘리며 자기는 그래도 다행이라는 카타르시스를 갖게 하는 영화가 히트할 운명에 있었다.

이 영화는 이북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옮겨 놓은 것으로 서울 시내에서 몇 번이고 재상영돼도 인파가 몰려오고 이로 인해 전국의 많은 극장들이 문을 열게 한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영화제작에는 어려움이 태산같았다. 첫째, 필름이 없어서 미군이 버린 기한이 지난 썩은 필름을 쓰레기장에서 주워서 이용했고 카메라는 ‘뉴스 아이모’ 카메라를 태업을 감아 돌렸다. 조명기는 물론 없었고 태양 광선을 이용하려고 촌의 농가 지붕을 뚫어 거울로 반사하여 촬영했다. 방안에 촛불을 켜면 곧 나이트 신이 되는 거였다.

요즘 영화 관객은 TV로 텔린트의 클로즈 업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하고 감정을 충분히 느끼게 혼란되어 있으나, 그 때 관객은 스크린을 멀리 바라보고 영화에 몰입하는 것이어서 배우 얼굴을 크게 클로즈 업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여기어 클로즈 업은 한 영화작품에 두서너 번 내밀 정도로 배경에 몹시 신경을 쓰던 시대다.

그러나 고전 영화로서의 배경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산하를 몇 달씩 답사해서 현장을 찾아냈다. 이 영화는 내가 아끼고 다시 리바이벌하고 싶은 불멸의 작품이다.

-「김기영 시나리오 선집」에서 <양산도>에 대한 김기영 감독의 글

## 인물 소개

### 김삼화 배우

본명 김덕화

- 6세 때부터 시공관에서 무용발표회를 하여 천재 무희로 불림
- 무용을 하다가 1955년 <양산도>에서 주연으로 데뷔
- <눈개>(56, 윤봉춘) <나는 너를 싫어한다>(57, 권영순) <이국정원>(58, 전창근) 등 50년대의 인기 여배우로 활동
- 결혼 후 은퇴했다가 <대도전>(62, 노필)에 주연으로 출연
- <명동에 밤이 오면>(64, 이형표)으로 연기 활동 마감

### 박암 배우

1924년 2월 29일 출생, 본명 박영철

- 1948년 서울대 치과대학 졸업
- 1951년 극단 '신협' 입단
- 1952년 <태양의 거리>(민경식 감독)로 데뷔
- <양산도>(55), <자유부인>(56), <황혼열차>(57), <인생차ап>(58), <월급쟁이>(62), <죽은 자와 산자>(66) 등 300여 편의 영화에 출연
- 1972년 영화배우협회 회장 역임
- 1989년 3월 22일 별세

**김 승 호 배우, 제작자**

1917년 7월 13일 강원도 철원 출생

- 1937년 동양극장 전속극단 '청춘좌'에 입단하여 <임자 없는 자식>으로 데뷔
- 1945년 '자유극장'에서 본격적인 연극활동을 시작하면서 연기부장을 맡음
- 1948년 <밤의 태양>에서 조연으로 영화계 활동 시작
- 1955년 <양산도>를 통해 본격적인 영화 활동
- 1956년 연기생활 18년 만에 39세의 나이로 <시집가는 날>에서 첫 주연
- <돌무지>(67) 등 3편의 영화를 제작
- <박서방>(60), <로맨스 빠빠>(60), <마부>(61), <서울의 지붕밑>(61), <로맨스그레이>(63) 등 200여편의 영화에 출연
- 1968년 12월 1일 별세



KOREAN FILM ARCHIVE COLLECTION

한국영상자료원 고전영역 컬렉션



# 양산도

Yangsan Province 陽山道



## Synopsis

Soo-dong (Jo Yong-soo) and Ok-ran (Kim Sam-hwa) have been promised to each other in marriage since before they were even born. Moo-ryong (Park Am), the son of Master Kim who returns from Hanyang, begins to want Ok-ran for himself. Ok-ran's mother, who never thought Soo-dong was good enough, uses this opportunity to make plans to marry her daughter to Moo-ryong with his Madame Kim. But Ok-ran's father refuses to let that happen and burns up the silk that comes as a wedding present. One night, Soo-dong tries to stop Moo-ryong from raping Ok-ran and is dragged away by Master Kim's servants who cut off his finger. Soo-dong's mother and Ok-ran's father, who are displeased with the situation, take Ok-ran and Soo-dong to the fields and secretly wed the couple who leave the village and escape. However, after they spend their first night as man and wife together, they get caught by Moo-ryong's servants who chased after them. In that process, Soo-dong falls off a cliff. Ok-ran's father, upon discovering that his daughter was captured, accidentally kills one of the servants. Ok-ran and her father go to jail. Moo-ryong promises to cover up the murder charge if Ok-ran marries him, and Ok-ran eventually agrees to do so. Moo-ryong releases Ok-ran from jail and walks her to her house when Soo-dong follows them and tries to kill Moo-ryong. But Ok-ran reveals that she plans to marry Moo-ryong, and Soo-dong returns home with a broken heart and kills himself. Soo-dong's mother and uncle bury his body along the road where Ok-ran's wedding procession is to pass by. Ok-ran's wedding procession passes by the grave, but the entire party's feet become stuck to the ground. Soo-dong's mother stops the procession from moving ahead and stabs Ok-ran who steps out of her carriage and then kills herself. Ok-ran crawls to Soo-dong's grave and dies there.

## About the film

<Yongsan Province>(1955) is the second feature-length film of director Kim Ki-young. If you take a look at the reviews this film received in various magazines at the time, you will find that it didn't receive good reviews ever since the beginning of its release. For example, Yoo Doo-yon criticized the film by saying the director, who attempted to show a great tragedy in the film, failed to do so and instead created a film in "extremely bad taste". Huh Baek-nyun agreed by saying that the film was a dishonest piece that "degraded the dignity of Korean films".

A story that involves a love triangle between commoners and the threatening upper class such as <Yongsan Province> is actually a subject matter that audiences have clearly seen more than enough of in popular Korean culture old tales like <Chunhyang Story>, or new-school Japanese dramas like <Janghnamong>, for example. In addition, critics might have felt that the actors' emotions didn't flow naturally or that it might have been difficult for the audience to follow the symbolic and stylistically bizarre dialogue and imagery as well as the overly exaggerated expressions during the love scenes. Also the final scene, in which of Soo-dong and Ok-ran ascend to heaven on a ray of light, would have seemed ridiculous to audiences used to realism in films. (This scene is missing from all extant prints of the film, and also missing from the DVD, but its existence has been verified by director Kim Ki-young before his death.)

Ironically, the very features that critics condemned as the film's shortcomings are appreciated today a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Kim Ki-young's cinematic world.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Yongsan Province>, the forced emotions and unnatural exaggeration of the story, which may have caused a tragedy to appear like a comedy, was just the beginning for the director and he developed these techniques to an even greater extent in <The Housemaid> and his subsequent film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member the fact that Kim Ki-young adopted the story from a traditional fable, and that he himself considered the final scene the most essential one in the film. Kim Ki-young made this film, therefore, not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but from a dream-like vision. Of course, it may not seem that the director fully realized that vision in the film. Therefore, it will make it all the more difficult to deem this film a masterpiece in Korean film history. Nevertheless, this film provides a valuable insight into the early development of Kim Ki-young's art. Finally, if we take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 this is the only one of the eight films that Kim Ki-young made before the 1960 release of <The Housemaid> that still survives, w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full worth of <Yongsan Province>.

## About the Director

He was a very 'Korean' director, but he was also the director to cast off Korean films 'the farthest and the most'. - Yi Hyoin

Kim Ki-young was born in 1919 in the Kyo-dong section of Seoul, to his parents Kim Suk-jin and Han Jin-cho, the only son among the three children. In 1940, he graduated from Pyeongyang High School. After failing from the Severance Medical School, he moved to Japan, where he remained until Liberation, immersing himself in theater and cinema. At the time, there was an exclusive foreign film area for students in Japan, and it was very popular amongst college students. With those fellow students, Kim Ki-young watched many movies that were shown in Japan at that time.

After liberation, Kim Ki-young returned to Korea and enrolled in the Kyungsung School of Dentistry (predecessor of the present-day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and in the early days of liberation, he produced theater in Pyeongyang. As the political situation in North Korea became difficult, Kim Ki-young returned to Seoul to finish his schooling. At this time he also participated in the Defense Club and led the 'National College Theater' movement at Seoul University. During this period, Kim Ki-young produced 'The Dark Road', which was adapted from Chekhov's 'On the Road', as well as Ibsen's 'Ghost', Capek's 'Robots', and Shakespeare's 'The Merchant of Venice', for which he received much critical acclaim.

When the war started in 1950, Kim Ki-young went south to Busan and married Kim Yoon-bong, a college friend with whom he had done theater. Kim Yoon-bong, a doctor, was Kim Ki-young's lifelong supporter both emotionally and financially. After the war, he was employed by the 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 At the time a doctor's monthly income was 3,500 won, Kim Ki-young received about 50,000 won per month from the USIS. While producing <Liberty News>, he made approximately 20 documentaries and cultural films.

It was at this time that Kim Ki-young made his debut film <A Box of Death>(1955) as a USIS production. <A Box of Death>(referring to a time bomb) is about a soldier, who returns home after the war only to be exposed as an agent for the North, and the neighborhood policeman, who blows up the underground headquarters of the Communists. Around the same time, the movie <Piagol> was made, and along with poet Kim Jong-moon and screenwriter Oh Young-jin, there was a great critical debate as to whether the films were anti-Communist or not.

Afterwards, Kim Ki-young successively released <Yangsan Province>(1955),

<Touch-me-nots>(1956), a movie focused on a catastrophic ending of a love triangle surrounding one woman, <A Woman's War>(1956), about the ups and downs of an angry illegitimate child born between a housemaid and her master, and <The Twilight Train>(1957), a debut film of then child-star Ahn Sung-gi and Kim Jeemee.

Kim Ki-young began to attract much attention in the Korean film industry when he released <The First Snow>(1958), a story set in the ghettos of a city in ruins after the war, and <The Defiance of Teenagers>(1959), his seventh feature film focused on the problem of juvenile delinquents in the Namdaemun area.

But Kim Ki-young really began to receive critical acclaim alongside Shin Sang-ok and Yoo Hyun-mok as the Big 3 in the Korean film community when he released <The Housemaid> in 1960. This film, based on a true story, portrayed how the maniacal tenacity of a housemaid brought about the fall of one family. With its grotesque staging and elegant camerawork, the film achieved the peak of visual arts in Korean films at that time. Also, the film showed Kim Ki-young's true character as a screenwriter as well. This film brought in 60,000 movie-goers and was a box-office hit. Afterwards, this film was remade into <Woman of Fire>(1971) and <Woman of Fire '82>, and other films like <The Insect Woman>(1972) and <Carnivore>(1984) featuring instead of a maid, sirens from the lower class like hostess girls. (These movies are an extension of the "The Housemaid" series.)

In particular, <Woman of Fire> and <Insect Woman> were popular box office hits in the year they were released with a record number of movie-goers going to see them.

Aside from the "siren" series, Kim Ki-young also made 31 other feature-length films, which include: <Hyonhaetan Knows Everything>(1961), <Goryeojang>(1963), <Elegy of Ren>(1969), <Transgression>(1974), <Promise of the Flesh>(1975), <I-eoh Island>(1977), <Killer Butterfly>(1979), etc. Among these, there are eight films that he produced as well, which are <Touch-me-nots>(1956), <The Housemaid>(1960), <Goryeojang>(1963), <Neu-mi>(1979), <Woman of Water>(1979), <Free Maiden>(1982), <Hunting of Fools>(1984), and <Carnivore>(1984).

Looking back on Kim Ki-young's cinematic world (particularly the "siren" series), it is interesting to see how his films have a subtle mix of a naturalist inclination that is based on physiology or even biological anthropology and a Freudian (or an expressionist bent with an influence of Freudian tendency) inclination.

Because of these special characteristics, we can assume that Kim Ki-young's personal history, like his background in science and medicine being the starting point of his Freudian inclinations, played a role in his experiences of naturalistic theatrical productions. As we see from Flaubert's example, naturalism has an ironic tendency to volatilize reality in theater and also is

inclined to become psychological or supernatural. Kim Ki-young's later films, particularly in <Killer Butterfly> and <Carnivore>, the cinematic exaggerations break down the overall narrative and the audience's sense of reality, which could be described as having already surpassed the psychological phase and moving into the supernatural stage.

The point that many cinematic researchers make regarding Kim Ki-young's cinematic world is that it is deeply implicated in Korean modernity.

His more famous films portray women with jobs that are shunned by Korean society, like housemaids or hostess girls. The fact that he is making a comment regarding Korean modernity in some way is an undeniable fact. The storyline of the dangerous woman and the fall of a bourgeois family at her hands, and the conclusive ending which results in the sacrifice of both man and woman not only exposes the basic fear that middle-class men have towards lower-class women, but also it allows for people to feel a complex compassion towards the lower-class who bolster the middle-class. In other words, "housemaids" are no different than the economic envy of those who rise and fall fast. They endlessly reappear like ghosts who died unjustly and while giving the girls a feeling of security for their sacrifices, they eventually come back to haunt them and collect what is theirs.

At the very least, Kim Ki-young's cinematic world was so creative that while he was alive no other film director could follow him. He made these creative films during the 1960s and 1970s, a time when realism or the classic Hollywood style reigned, which, in a way, is an absolute miracle. Yi Hyojin, film critic and director of the Korea Film Archive, had this to say about the film <The Housemaid>. "The important thing is the fact that this kind of film came out in Korea at a time when realism was the most valuable aesthetic quality. But instead of choosing a sense of reality in the subject matter, he chose this. And it is necessary for us to focus on the process and conclusion of this cinematic connection."

Also, it is worth repeating the remark that critic and major director of the 1970s Ha Gil-jong had to say about Kim Ki-young. "Kim Ki-young's films do not have a conventional storyline, and all that exists is a frank portrayal of the human consciousness. He is highly experimental, and in the editing process he has a great attachment to the human consciousness. Kim Ki-young always portrayed one side of the Korean society in an exaggerated manner in his films, but there is no need to argue whether that is absurd or not. If the story is absurd, then that is because he observes the Korean society as being absurd."

- Korean Film Archive Research Team Jo Joon-hyung

## **Chronological record of Kim Ki-young's films**

1. <A Box of Death>(1955, USIS)
2. <Yangsang Province>(1955, Sorabol Film Company)
3. <Touch-me-nots>(1956, Kim Ki-young Production)
4. <A Woman's War>(1957, Eunsung Film Company)
5. <The Twilight Train>(1957, Donggwang Film Company)
6. <The First Snow>(1958, Arts Film Company)
7. <A Defiance of Teenagers>(1959, Bumah Film Company)
8. <A Sad Pastoral>(1960, Korean Film Distribution)
9. <The Housemaid>(1960, Korean Literary Films)
10. <Hyonhaetan Knows Everything>(1961, Korean Literary Films)
11. <Goryeojang>(1963, Korean Art Films)
12. <Asphalt>(1964, Korean Art Films)
13. <Soldiers Talk After Death>(1966, Korean Art Films)
14. <Woman, Woman, Woman>(1968, Korean Art Films,  
produced by Jung Jin-woo, Yoo Hyun-mok and Omniverse)
15. <Lady Hong>(1969, Saehan Films)
16. <Elegy of Ren>(1969, Saegi Company)
17. <Woman of Fire>(1971, Woojin Films)
18. <The Insect Woman>(1972, Hanlip Corporation)
19. <Transgression>(1974, Donga Export Company)
20. <Promise of the Flesh>(1975, Donga Export Company)
21. <Love of Blood Relations>(1976, Samyoung Films)
22. <I-eoh Island>(1977, Donga Export Company)
23. <Earth>(1978, Donga Export Company)
24. <Killer Butterfly>(1978, Woojin Films)
25. <Woman of Water>(1979, Shinhan Literary Films)
26. <Neu-mi>(1980, Shinhan Literary Films)
27. <Ban Geum-ryun>(1981, Donga Export Company)
28. <Woman of Fire '82>(1982, Shinhan Literary Films)
29. <Free Maiden>(1982, Shinhan Films)
30. <Hunting of Fools>(1984, Hwacheon Company)
31. <Carnivore>(1984, Shinhan Films)
32. <An Experience Worth Dying For>(1988, Shinhan Films, released in  
1998)

## Reference literature

- 『Kim Ki-young』(Yi Hyeon, Haneul Ahreh, 2002)
- 『Dictionary of Korean Film Directors』(Kim Jong-won, Korean Classical Archive, 2004)
- 『Selection of Kim Ki-young Scenarios』(Jipmoondang, 1996)
- 『Kim Ki-young and the Territory of Entertainment(2) - 1-eoh Island』(Kim So-young, Monthly Modern Literary Issue 521, May 1998)
- 『<Yangsan Province>, the Standard of Korean Films in the 1950s』(Lee Yong-gwan, Film Culture Information, April 20, 1999)
- 『Chaotic Production, <Yangsan Province>』(Yoo Doo-yon, Kyonghyang Newspaper, October 25, 1955)
- 『The Direction of Korean Films, The Problems of <Yangsan Province>』(Huh Baek-nyun, Choson Ilbo, November 6, 1955 and November 8, 1955)
- 『Kim Ki-young: A Movie of Devilish Desire and Death』(Kim Youngjin, Interview, Busan Film Festival Committee, 1997)

## Yangsan Province

After the Korean War, four million had fallen victim, Seoul was in ruins, and the survivors had nearly lost all will to live.

At that time, the movie industry made box office hits by producing films that touched the heart of movie-goers. Audiences wept for characters that lived through harsher and more severe conditions than they were in. And at the same time, because they were able to feel grateful that they had it better off, the movies were a great success.

This movie was made from a legend that hails from Northern Korea. Many new theaters all over the nation opened up thanks to this picture because so many people went to see the film again and again.

However, at the time, there were many production difficulties in making the movie.

First of all, there was no film so they had to dig through the trash and find old film that had already been used and thrown away by the U.S. Army. The camera that they used had to be manually wound as well. There was no lighting equipment, and holes had to be made in roofs of houses in order to reflect the sun's rays onto a mirror to shoot the picture. Night scenes were only different in that they lit candles for the scenes.

These days, audiences are trained to see and hear actors on television at a close distance and sufficiently feel the emotions that they are trying to portray. But at that time, audiences had to view the screen from a far distance. Also, it was felt that it was unnatural to do a major close-up on an actor's face because then the audience wasn't able to completely absorb the movie. So it was a time when close-ups were very few and much attention was paid to backgrounds.

However, it was nearly impossible to find backgrounds for classic films, so many months were spent scouting for locations at mountains and rivers. This is an immortal film that I hold dear to my heart and would like to see revived.

*- Written by director Kim Ki-young regarding <Yangsan Province> from the Selection of Kim Ki-young's Scenarios*

## Cast & Crew

### **Kim Sam-hwa Actor**

Real name: Kim Deok-hwa

- Began Sigongkwan(Dance halls) at the age of six, and was called a dancing child prodigy
- Continued dancing until cast as the main actress in 1955's <Yongsan Province>
- Active as a popular actress during the 1950s in films like <Nongae>(1956, Yoon Bong-Choon), <I Hate You>(1957, Kwon Young-soon), <Love with an Alien>(1957, Jeon Chang-geun), etc.
- Retired after marriage, but returned to star in <Great Challenge>(1962, No Pil)
- Ended her acting career with the film <A Night in Myeongdong> (1964, Lee Hyung-pyo)

### **Park Am Actor**

Born on February 29, 1924, Real name: Park Young-chul

- Graduated from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Dentistry in 1948
- Joined the theatrical troupe for 'Shinhyup' in 1951
- Debuted in 1952's <Street of the Sun>(director Min Kyung-shik)
- Starred in over 300 films, including <Yongsan Province>(1955), <Madame Freedom>(1956), <The Twilight Train>(1957), <Seized Life>(1958), <Salaryman>(1962), <Dead Man and Living Man>(1966), etc.
- Filled post of President of Film Actors' Association 1972
- Passed away on March 22, 1989

**Kim Seung-ho Actor, Producer**

Born in Cheol-won, Kangwon Province on July 13, 1917

- Joined the Dongyang Theater troupe, 'Chungchunjwa', in 1937 and debuted with <The Orphan>
- Officially began acting Jayukukjang in 1945 and became the acting director
- Began acting in films in supporting roles with 1948's <The Sun of Night>
- Began continuously appearing in movies after filming 1955's <Yangsang Province>
- In 1956, played first starring role in 18 years at the age of 39 in <The Wedding Day>
- Produced three movies, including <Dolmuji>(1967)
- Starred in 200 films including <Mr. Park>(1960), <Romance Papa>(1960), <A Coachman>(1961), <Under The Roofs Seoul>(1961), <Romance Gray>(1963)
- Passed away on December 1, 1968

번역 감수 일 객승/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Translation Inspected by Earl Jackson, Jr. /

Visiting Professor Cinema Studies The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the Arts

